

안국산업 곡성휴게소, 광주고에 장학금



안국산업(주) 곡성휴게소·주유소(대표 김성수)는 최근 인재 육성을 위해 광주고등학교를 방문, 장학금을 전달했다. <안국산업(주) 제공>

광주 효령노인복지타운, 경로당에 과일 전달



광주 효령노인복지타운(본부장 양안숙) 직원들은 최근 광주시 북구지역 경로당 5곳을 방문해 송편과 과일 등을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광주복지재단 제공>

조선대 의과대학동창회, 저소득층 의료비 기탁



조선대 의과대학 동창회는 최근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써달라며 기부금 500만원을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에 전달했다. <조선대병원 제공>

임내현 국민의당 법률위원장 부산 마약회의 참석

국민의당 임내현 법률위원장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26차 국제마약회의에 초청돼 참석한다. 임 위원장은 대검찰청 2대 마약과장출신으로 국내외 대표적 마약퇴치 유공자로 꼽히고 있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국제검사협회 제21차 연례회의에 상임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세계 주요국 검찰 간부들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한국 검찰 홍보와 국위선양 및 국제검찰기관 간 협력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아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지원장 이달우) 청년(회장 이철환) 이화 월례회=20일(화) 오후 7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지원장 이달우) 여성(회장 이보희) 이화 월례회=22일(수) 오전 11시 도지원 회의실 3층 062-225-5636.

동문회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 (회장 전주연) 2016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 및 야유회=24일(토) 오전 8시 완도 수목원 등 접수문의 유은학원총동문회 사무국 062-361-2680.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

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무료 상담=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지원 및 법률지원 062-521-1365.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 모상담, 임양상담 24시간, 미혼양육모 지원,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원, 심리 상담센터 운영 062-222-9349.

▲‘금융컨설팅’ 채권·채무·재테크 무

로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가시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광주신세계희망장난감도서관 자유 놀이실 무료이용=건강한 놀이문화 조성 을 위한 장난감 대여 및 놀이공간 제공 12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이용 가능. 광주 북구 오치2동 광주종합사회복지관 3층 월요일 휴관, 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062-264-0060.

모집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

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 장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안전모니터봉사단원=재난안전사고 예방신고, 제보활동 안전부주의, 안전불감증 등 국민의식개선에 대한 홍보등의 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광주시민누구나 가능) (사)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광주광역시지회 062-514-2929.

▲남구 방방1동 새마을협의회=자원봉사 남구 회원 수시 모집(자녀 장학금 혜택 있음) 010-9612-7695.

▲푸른길통동문화마을을 회원=푸른길 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바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 대상 아동=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을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언어발달 평가, 언어발달교육(주 2회·1회 40분) 상담(무료)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

부음

▲박도순씨 별세 김상욱·정육·양육·미경·영희·경애씨 모친상 김엄씨 시모상 고성민·팔마로버트·한성근·진수식씨 빙모상=별인 19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민경에서 별세 전영걸씨 부인상 전해원·해림씨 모친상=별인 19일(월)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5분향소 062-231-890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201호故양신례 님(여/89세) 子/子婦：광주남/이선영, 주삼/최인림, 주민/변은영 女/婿：김순애 ●발인：9월 19일 ●장지：임실호국원 ●연락처：227-4381	301호故박영금 님(여/83세) 子/子婦：김용삼/손은자 女/婿：김은숙/정태욱, 영란/김재현 ●발인：9월 20일 ●장지：나주남평선영 ●연락처：227-4382
401호故전금식 님(남/74세) 子/子婦：산영전, 병욱/최영희, 병하/나수미 孫：산준석, 준혁, 초희, 소희 ●발인：9월 20일 ●장지：정충장평선영 ●연락처：227-4383	102호故정호길 님(남/67세) 女/婿：정혜주/고덕근, 혜영 未亡人：한희숙 ●발인：9월 20일 ●장지：영락공원 ●연락처：227-4385

孝 **마음까지 편안 한**
금오 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유라시아 역사·문화 통해 우리 삶 돌아보는 계기됐으면”

문화전당서 ‘새로운 유라시아 프로젝트’ 진행 박경 교수

“유라시아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우리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박경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수는 현재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창조원에서 선보이고 있는 전시 ‘새로운 유라시아 프로젝트 제2장, 이곳으로부터 저곳을 향해, 그리고 그 사이 : 네트워크의 극(劇)’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새로운 유라시아 프로젝트’ 총감독인 박 교수가 기획한 이 전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3년에 걸쳐 펼쳐질 전시의 두 번째 장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석유, 비단, 이주민, 상인, 정복자, 여행자로 상징되는 여섯 명의 가상인물을 통해 유라시아에서 펼쳐지는 인간과 자연의 이동과 흐름, 지역 간의 관계를 조망했다. 전시장은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이 돼 가상인물들의 이동 경로와 여기서 발생하는 자연, 에너지, 이데올로기의 움직임에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유라시아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개념입니다. 아시아가 새롭게 주목

석유·비단 등 가상인물 6명 내세워

인간과 자연의 이동·흐름 조망

백남준 참여 ‘프로젝트 DMZ’ 기획

받으면서 예전에는 동양이 서양을 쫓았다면, 이제 서양이 동양을 따라오는 관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서양을 모방하는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관객들과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박 교수는 오는 2017년까지 진행될 전시에서 “관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작품을 통해 관객들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술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전시에서 더 많은 질문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작가가 특정한 방향이나 지침을



주면 관객들은 생각하는 힘이 없어져요. 작가가 던진 질문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주제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작품이 하나의 언어(소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박 교수는 사진, 영상, 설치, 뉴미디어를 이용하여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영역과 이론을 연구하고 형상화하는 작가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감독으로 활동하며 백남준, 폴 비릴리오 등이 참여한 ‘프로젝트 DMZ’(1988) 등을 기획했다. 지난 2009년부터 2년 동안 스페인 리용 카스틸라 현대미술관에서 ‘뉴 실크로드’ 개인전을 열었다. 뉴 실크로드는 사실상 그가 유라시아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됐다.

“국제사회에서 유라시아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국가, 개인차원에서 유라시아는 중요 주제입니다. 전시 ‘유라시아 프로젝트’는 관객들이 개인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가, 각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망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유라시아 프로젝트’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매주 수요일에는 밤 9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카를루스 벨로 주교 “5·18 특별미사 집전하고 싶다”

광주시, 긍정 검토하기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의 카를루스 벨로 주교가 “내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 특별미사를 집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벨로 주교는 최근 윤정현 광주시장과 가진 만찬에서 특별미사 집전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 광주시는 벨로 주교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벨로 주교와 윤 시장은 2시간 동안 동티모르의 독립과 이후 정치, 경제 상황, 광주 민주화의 역사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윤 시장은 “광주와 동티모르의 뜻깊은 연대가 향후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교류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며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광주정신’을 계승하자”고 말했다.



윤 시장은 안과 의사 시절 사재를 털어 안양에 국제청년캠프를 열어 망명정부인 동티모르, 버마, 부탄 3곳의 청소년들을 함께 초청하면서 동티모르와 인연을 맺었다.

한국YMCA 등과 함께 동티모르에 농기계 지원, 커피 공정무역 등 경제발전을 위해 애써온 윤 시장은 이번 벨로 주교와의 만남에서도 농업발전과 평화재건 사업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벨로 주교는 동티모르의 정신적 지도자로 1996년 호세 라모스 호르타 전 대통령과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명호 전남대병원 교수 한국지질동태경화학회장 선출

전남대병원 순화기내과 정명호 교수가 최근 한국지질동태경화학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한국지질동태경화학회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전남의대 정명호 교수는 1996년부터 국내 최초로 동물 심도자살을 설립해 동태경화에 관한 기초 연구를 진행, 2004·2011·2014년도에 학회로부터 최우수연구상(Best research award)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AMIR)를 통해 한국인 심근경색증 환자의 지질에 관한 연구를 시행했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서양인에 비해 높지 않다는 사실과



중성지방이 높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환자는 절반 이상을 차지해 스타틴 단독요법으로는 치료 효과가 크지 않음을 보고, 2015년 유럽심장학회 최우수 포스터상을 받은 바 있다.

정명호 교수는 지질동태경화증에 의한 협심증, 심근경색증 분야의 기초 및 임상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 국내외학회지에 1200여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저서 69편, 특허 53건의 국내 최고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산림조합, 우리나무로 만든 친환경 책결상 기증

광주 보물섬아동센터에

산림조합중앙회와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최기열), 광주시산림조합(조합장 노한섭)은 “우리 나무로 만든 친환경 책결상을 광주 보물섬지역아동센터에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지역아동센터의 교육환경 개선과 우리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기 산림조합이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책결상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인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노후화된 책상과 의자를 우리 나무로 만든 친환경 책결상으로 바꿀주는 사업이다.

보급대상 선정은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았으며,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공부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가정 등에서 우선 추진되고 있다.

책결상 제작에 이용되는 목재는 국산 간벌



재 가운데 낙엽송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작은 산림조합 중부목재유통센터(경기도 여주시)에서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방식으로 제작됐다.

산림조합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지원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우리나무로 만든 친환경 책결상 지원 사업’의 올해 우리지역 지원대상은 광주 보물섬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美 현대회극 거장 올비 별세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 극작가 에드워드 올비가 16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8세.

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올비의 비서는 올비가 뉴욕 동부 몬타우크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올비는 당뇨병을 앓아왔지만, 직접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표작 ‘누가 버지니아 올프를 두려워하라’ 등의 걸작으로 유명한 올비는 ‘욕망이라는 이



름의 전차’의 테네시 윌리엄스(1911~1983), ‘세일즈맨의 죽음’의 아서 밀러(1915~2005)의 뒤를 잇는 미국 현대 희곡계의 거장으로 불린다.

신랄한 유머와 어두운 주제로 그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누가 버지니아 올프를 두려워하라’는 1962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후 지금까지도 세계 각국에서 공연되고 있으며, 토니상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을 받았다.

/연합뉴스